

2014

연구보고서-15

I S S U E P A P E R

# 여성가족패널조사로 본 여성의 삶과 경제활동의 변화들

수행과제명 • 2014년 여성가족패널조사  
과제책임자 • 주재선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여성가족패널조사로 본 여성의 삶과 경제활동의 변화들\*

수행 과제명  2014년 여성가족패널조사

과제 책임자  주재선 연구위원

 Tel: 02-3156-7192

 e-mail: jjs2000@kwdimail.re.kr

## 요약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는 2006년부터 여성의 삶과 가족의 구조, 일자리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구축하는 전국 규모의 패널조사로 여성정책 수립 및 평가, 여성 삶에 대한 학술적 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음.

## 1 배경 및 문제점

-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위 변화와 일자리 경험을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주재선·문유경·김영택·임연규·손창균·조은주·강은수(2014). 2014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비롯하여, 가족과 관련한 가치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가족형성 과정과 사건(event)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자료 구축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조사로, 여성정책 수립 및 평가, 여성 삶에 대한 학술적 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음.

- 여성가족패널조사는 2007년에 시작된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종단조사로 다음과 같은 차별을 가짐.
  - 첫째, 여성가족패널은 여성·가족정책 및 관련 연구를 지원하기에 가장 적합한 종단자료임. 기존 패널에도 여성의 삶을 추적하고 그 변화를 분석할 수 있으나, 이들 조사는 여성의 전반적 삶과 그 하위 수준까지 고려하여 정책을 분석하고 연구하기에는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음. 이에 비해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의 표본으로 조사되며, 여성의 전 생애를 통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삶의 유형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종단자료라는 차별성을 가짐.
  - 둘째,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여성과 가족의 역동적 측면을 포착할 수 있도록 구성됨. 기존의 조사들은 대부분 남성 중심으로 노동시장 수급구조를 파악하고 있고 일, 가족, 여가의 조사내용도 성인지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음. 반면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설문항목에서 ‘일과 가족, 일-가정 양립’, ‘여성의 노동과 여가’,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 등의 기존 범주 구분을 넘어서서 여성들의 역동적 삶의 궤적을 잘 포착할 수 있도록 조사·설계되었음.

## 2 조사 및 분석결과

- 가구 및 가구원의 변화
  - 가구주의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조사가 진행되면서 여성가

가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남성가구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이번 4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여성가구 비중이 17.6%를 나타냄. 이는 1차 웨이브 조사에 비해 2.7%p가 증가한 수치이며, 이는 패널원의 고령화에 따라 남성가구가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인 여성에게 가구주가 승계되거나, 여성가구가 분가하여 1인가구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에 따른 것임.

〈표 1〉 가구주 성별

(단위: %)

가구주 성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남성	85.1	84.9	83.0	82.4
여성	14.9	15.1	17.0	17.6

- 집을 점유하는 형태를 분석한 결과, 자가 68.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세가 18.4%, 보증부 월세가 8.7%를 차지함. 자가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편이고, 전세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표 2〉 점유형태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자가	61.8	66.7	66.2	68.0
전세	24.5	21.2	21.2	18.4
보증부 월세	8.2	7.0	7.8	8.7
월세(사글세포함)	2.0	1.5	1.1	0.9
무상 및 기타	3.3	3.6	3.6	3.9

- 가구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소득을 얻는지를 살펴본 결과,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인 경우가 전체가구의 92.5%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금융소득인 경우가 10.6%, 부동산소득인 경우가 7.0%로 나타남.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인 경우가 감소추세에 있고 금융소득, 부동산소득이 증가하는 현상은, 조사차수가 거듭될수록 패널원들이 은퇴하여 근로소득 이외의 경로를 통하여 수입을 얻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됨.

〈표 3〉 가구소득 원천 보유현황

(단위: %)

가구소득 원천 보유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있음	93.3	92.9	93.0	92.5
	없음	6.7	7.1	7.0	7.5
금융소득	있음	8.0	8.5	8.5	10.6
	없음	92.0	91.5	91.4	89.4
부동산소득	있음	4.2	5.3	5.7	7.0
	없음	95.8	94.7	94.3	93.0

- 4차 웨이브 조사에 조사된 월평균 생활비는 1차 웨이브 조사 대비 17.6%의 증가율을 보였음. 항목별로 살펴보면, 식비가 47만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함. 기타소비지출이 2순위였으며, 다음으로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한 교육비로 39만원, 교통·통신비로 37만원을 매달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차 웨이브 조사와 비교하여 비중별로 살펴보면 자녀사교육비(3.5%p 감소), 식비(0.9%p 감소), 자녀공교육비(0.6%p 감소), 보건의료비(0.3%p 감소), 외식비(0.2%p 감소) 순으로 감소폭이 컸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항목은 기타소비지출(2.6%p 증가), 교통·통신비(1.7%p 증가), 교양오락비(1.1%p 증가), 가구집기 가사용품비(0.2%p 증가) 순으로 나타남.
- 가계지출항목 중 부담이 큰 항목은 1차부터 3차까지 꾸준히 교육비가 1순위이고, 교통·통신비가 2순위인 것으로 나타남. 4차 들어서 두 항목의 순위가 바뀌어 1순위가 교통·통신비, 2순위가 교육비인

것으로 나타남.

〈표 4〉 가계지출항목 중 부담이 큰 항목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1순위	교육비	교육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2순위	교통·통신비	교통·통신비	교통·통신비	교육비

- 가계의 경제상황을 종합해본 결과, 소득의 상승률보다 상환액의 상승률이 더 증가함으로 인해 가처분소득의 상승률이 소득의 상승률보다 적음을 확인할 수 있고, 흑자액의 상승률 또한 소득에 비해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한편, 2010년을 100으로 했을 때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7년에 90.302, 2011년에 104.0을 나타내고 있으며, 5년 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5.6%를 보임. 따라서 물가의 상승률보다 1.0%p 많은 소득의 상승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5〉 가계 경제 총괄 현황

(단위: 만원,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1차대비 상승률
소득 평균	307.94	311.90	324.42	358.97	16.6
소비지출 합계 평균	196.02	200.79	217.51	230.62	17.6
월평균 저축액	71.75	74.29	80.44	86.50	20.6
월평균 원리금 상환액 중간값	25	20	25	30	20.0
가처분소득 (소득-상환액)	282.9	291.9	299.4	329.0	16.3
흑자액 (가처분소득-소비지출)	86.9	91.1	81.9	98.4	13.2

주: 소득은 세전의 소득을 사용함에 따라, 상향평준화되었으며, 월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특이치를 제어하기 위해 중간값을 사용하여 하향평준화 됨. 그러므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결과와 상이할 수 있음.

▣ 여성 개인의 변화와 특징

- 1차 조사에서 미혼 응답자의 77.3%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2차 조사에서 미혼 응답자는 이보다 5.5%p 낮은 71.8%, 3차 웨이브 조사 미혼 응답자는 전 웨이브 조사 응답자에 비해 6.6%p 낮은 65.2%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4차 조사 결과 미혼 응답자의 결혼 의향 변화는 지난 조사 이후 6.3%p 증가한 71.5%로 나타남.

〈표 6〉 결혼 의향 변화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있다	77.3	71.8	65.2	71.5
없다	13.3	13.7	19.9	16.0
생각해 본 적이 없다	9.4	14.4	14.9	12.5

- 결혼생활의 행복감 변화를 살펴보면, 10점 척도 기준으로 6.5점 ~ 7.0점에 분포하여 대체적으로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를 조사 시간별로 살펴보면, 1차 웨이브 조사 시 평균 7.0점에서 2차 웨이브 조사 6.99점, 3차 웨이브 조사 6.55로 다소 하락함가 4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6.73점으로 다소 증가함. 이는 1차 조사 대비 0.27점 하락한 결과임.

〈표 7〉 결혼생활의 행복감 변화

(단위: 점)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변동			
					1차→2차	2차→3차	3차→4차	1차→4차
평균	7.00	6.99	6.55	6.73	-0.01	-0.44	+0.18	-0.27

주: ‘매우 불행하다’가 1점, ‘매우 행복하다’가 10점 기준임.

-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말 그렇다’와 ‘대체로 그런 편이다’로 응답한 경우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나는 남편을 신뢰한

다(87.6%→91.4%→90.2%→91.1%)’, ‘나는 남편과 부부생활(성관계)에 만족한다(79.8%→81.4%→78.4%→80.2%)’, ‘나는 남편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한다(76.1%→77.9%→75.4%→76.0%)’, ‘나는 남편과 서로 견해가 비슷하다(69.5%→71.1%→69.6%→69.4%)’의 순으로 남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8〉 남편에 대한 인식 변화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나는 남편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한다	76.1	77.9	75.4	76.0
나는 남편과 서로 견해가 비슷하다	69.5	71.1	69.6	69.4
나는 남편과 부부생활(성관계)에 만족한다	79.8	81.4	78.4	80.2
나는 남편을 신뢰한다	87.6	91.4	90.2	91.1

주: 각 구분에 대해 ‘정말 그렇다’와 ‘대체로 그런 편이다’를 응답한 비율

- 가족 내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부부가 함께 결정하는 것은 ‘자녀 교육’, ‘투자 및 재산 관리’와 ‘가족 내 여가활동’이며, 그 외 ‘본인의 취업이나 직장이동’, ‘남편의 취업이나 직장이동’의 경우 부부의 의견을 참고로 해당 개인의 의사로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생활비 관리’의 경우 대부분 여성 응답자 본인이 의사 결정을 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혼한 경우 자녀와 연락하고 만나는 빈도로 1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이보다 드물게(37.2%)’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2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한 달에 한두 번(30.4%)’, 3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일 년에 한두 번(47.7%)’, 4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한 달에 한두 번(45.0%)’, ‘이보다 드물게(34.4%)’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왕래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등 조사하는 차수 별로 만나는 빈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9〉 이혼 후 자녀와 연락하고 만나는 빈도 변화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26.5	10.3	9.5	8.3
한 달에 한두 번	3.6	30.4	14.7	45.0
두세 달에 한두 번	15.2	21.4	6.5	5.5
일 년에 한두 번	17.5	10.7	47.7	6.7
이보다 드물게	37.2	27.3	21.5	34.4

주: 첫 번째 자녀에 대한 응답에 한함.

- 자녀출산계획 시기 변화를 살펴보면 1년 이내의 경우, 1차 42.9%, 2차 15.4%로 크게 감소되었으나 3차 44.9%, 4차 51.6%로 최근 증가 추세임. 1년에서 2년 사이인 경우, 1차 34.2%, 2차 16.7%로 감소되었으나 3차 32.3%로 일시상승 후, 4차 30.6%로 감소됨. 2년 이후인 경우, 1차 22.8%, 2차 15.3%, 3차 22.8%, 4차 17.8%로 등락을 거듭했음.

〈표 10〉 자녀출산계획 시기 변화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1년 이내	42.9	15.4	44.9	51.6
1년에서 2년 사이	34.2	16.7	32.3	30.6
2년 이후	22.8	15.3	22.8	17.8
언제가 될지 모르겠음	-	52.6	-	-

- 초·중·고 자녀와 평소에 대화하는 주제를 살펴보면,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하여’가 1~4차에 걸쳐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차에 71.4%, 2차에 65.1%, 3차에 69.2%, 4차에 73.5%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 ‘학업성적과 진학에 대해’가 1~4차에 걸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차에 55.8%, 2차에 52.6%, 3차에 43.2%, 4차에 46.7%로 나타남.

〈표 11〉 초·중·고 자녀와 평소에 대화하는 주제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자녀의 취업이나 진로에 관하여	10.9	11.3	11.2	10.0
자녀의 학업성적과 진학에 대해	55.8	52.6	43.2	46.7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하여	71.4	65.1	69.2	73.5
자녀의 생활 습관에 대하여	-	33.0	44.8	37.8
자녀의 동성친구에 대하여	19.7	16.1	12.3	16.2
자녀의 학교과목 이외의 활동	12.5	1.0	0.8	4.0
자녀의 미래희망에 관하여	15.8	5.2	5.5	5.1
나 자신의 고민거리나 문제에 대하여	0.8	0.5	1.4	0.7
부모님이나 친척, 친지에 관하여	0.7	0.3	0.3	0.2
자녀의 이성친구나 결혼계획에 관하여	1.4	-	-	0.5
기타	4.1	9.5	7.3	1.6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	6.2	1.2	0.8	0.9

주: 중복응답(누적 케이스 백분율)

- 미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도움을 준다’인 경우가 ‘도움을 주지 않는다’ 보다 1~4차에 낮게 나타남. ‘도움을 준다’인 경우 1차에 33.0%, 2차에 39.3%, 3차에 37.5%, 4차에 39.2%로 나타남. ‘도움을 주지 않는다’인 경우 1차에 66.0%, 2차에 59.8%, 3차에 62.5%, 4차에 60.8%로 나타남.

〈표 12〉 미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지 여부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도움을 준다	33.0	39.3	37.5	39.2
도움을 주지 않는다	66.0	59.8	62.5	60.8
기타(모름)	10.0	0.9	-	-

- 기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도움을 주지 않는다’의 비율이 ‘도움을 준다’의 비율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도움을 준다’인 경우 1차 6.9%, 2차 10.7%, 3차에 10.4%, 4차에 10.8%로 1차에 비해 높아졌음.
- 본인 부모님과 같이 사는 이유에 대해 4차 조사를 우선 보면,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가 70.5%로 가장 높고, ‘나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서’가 16.4%, ‘부모님이 연로하여서’가 6.2%로 그 다음으로 높음. 1차 때부터 4차 때까지의 경향을 보면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는 75.5%에서 70.5%로 감소하였고(75.5%→75.3%→79.9%→70.5%) 반면 ‘나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서’는 11.9%에서 16.4%로 증가함(11.9%→12.6%→8.4%→16.4%).

〈표 13〉 본인 부모님과 같이 사는 이유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부모님이 연로하여서	6.3	8.0	6.4	6.2
부모님 중의 한 분이 돌아가셔서	2.2	0.7	0.4	2.1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1.3	1.3	1.9	1.6
형제 중 맏이어서	1.3	0.3	0.1	1.9
다른 형제가 없어서	0.8	0.1	0.9	1.0
나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서	11.9	12.6	8.4	16.4
부모님의 경제적인 이유로	2.4	1.5	1.2	1.7
육아에 도움을 받으려고	2.0	2.0	1.7	1.1
가사에 도움을 받으려고	1.8	0.9	2.1	2.9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75.5	75.3	79.9	70.5
기타	1.2	-	0.1	

주: 중복응답

- 시부모님과의 갈등을 항목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갈등이 전혀 없

다'가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고, 1차 때와 비교해도 갈등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갈등이 전혀 없다'에 대한 응답은 1차 조사 시 77.5%에서 4차 조사 시 79.0%로 증가하였으며, '본인 남편과의 문제에 대한 갈등이 전혀 없다'는 78.0%에서 77.9%로 다소 감소함. '가족이나 친척, 친지와 관련된 갈등 역시 전혀 없다'가 1차 때의 74.4%에서 4차에는 81.4%로 증가하여 갈등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의 정도 응답 중 가장 심한 편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가 8.6%로 제일 높게 나타남. '스트레스를 받아도 쉽게 풀지 못한다'가 7.9%, '직장이나 가정 또는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가 5.8%,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가 3.0%로 나타남.

〈표 14〉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의 정도

(단위: %)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직장이나 가정 또는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5.8	49.2	33.0	12.0
기분이 우울해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다	0.6	9.2	45.6	44.7
혼자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재미있다	2.1	13.3	49.7	34.9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0.5	8.6	56.7	34.2
심각한 고민이 있어도 함께 이야기 할 사람이 없다	1.5	12.7	55.8	30.0
스트레스를 받아도 쉽게 풀다	7.9	46.4	37.3	8.4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8.6	33.0	45.3	13.1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3.0	27.3	54.6	15.0

- 연령별 여성응답자의 체형을 살펴보면, '매우 비만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나이가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남. 60세 이상이 '매우 비

만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4.4%, 50대가 3.3%, 40대가 3.1%, 30대 이하가 2.2%로 나타남.

〈표 15〉 연령별 여성응답자의 체형

(단위: %)

연령	매우 마른편이다	약간 마른편이다	보통이다	약간 비만이다	매우 비만이다
30대 이하	0.5	15.5	64.2	17.6	2.2
40대	0.7	10.9	60.2	25.1	3.1
50대	1.1	9.0	58.0	28.6	3.3
60세 이상	1.8	14.2	49.7	29.9	4.4

▣ 여성 일자리의 변화와 특징

- 1차 웨이브 조사에 응답한 패널을 기준으로 4차 웨이브 조사까지 계속 응답한 6,678명을 대상으로 상태변화를 추적해 본 결과, 1차 웨이브 조사에서 취업상태에 있던 여성 패널이 4차 웨이브 조사까 1차 웨이브 조사에서 취업상태에 있던 여성 패널이 4차 웨이브 조사까지 연속으로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총 3,012명 중 2,320명으로 나타남. 즉, 1차 웨이브 조사의 취업상태가 계속 유지된 비율이 77.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변화는 3차 웨이브 조사까지 취업상태를 유지하지만 4차 웨이브 조사에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된 패널(197명, 6.5%) 형태였고, 2차 웨이브 조사부터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된 패널(111명, 3.7%), 3차 웨이브 조사부터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된 패널(149명, 4.9%) 등이 1차 웨이브 조사 취업상태에서 변화된 주요 형태로 나타남. 규모는 크지 않지만, 2차 웨이브 조사에서 실업상태로 남아 있는 패널은 3차 웨이브 조사와 4차 웨이브 조사에 다시 취업상태로 변화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2차 웨이브 조사에 비경제활동인구로 변화된 패널의 경우 4차 웨이브 조사까지 비경제활동상태로 남아 있는 패널의 수가 많았음.

〈표 16〉 취업자의 상태변화

(단위: 명, %)

구분		4차(2012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취업자	취업자	2,320	(77.0)	17	(0.6)	197	(6.5)
	실업자	6	(0.2)	1	(0.0)	3	(0.1)
	비경제활동인구	62	(2.1)	3	(0.1)	149	(4.9)
	소계	2,388	(79.3)	21	(0.7)	349	(11.6)
실업자	취업자	16	(0.5)	0	(0.0)	1	(0.0)
	실업자	4	(0.1)	0	(0.0)	0	(0.0)
	비경제활동인구	5	(0.2)	0	(0.0)	5	(0.2)
	소계	25	(0.8)	0	(0.0)	6	(0.2)
비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64	(2.1)	1	(0.0)	8	(0.3)
	실업자	3	(0.1)	0	(0.0)	3	(0.1)
	비경제활동인구	28	(0.9)	5	(0.2)	111	(3.7)
	소계	95	(3.2)	6	(0.2)	122	(4.1)

주: 1차 웨이브 조사 취업자(3,012명)의 경제활동상태를 추적함.

- 1차 웨이브 조사에 실업자인 패널 중 4차 웨이브 조사까지 연속해서 실업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음. 이들 중 2차 웨이브 조사에 취업자로 노동시장으로 들어온 후 이를 4차 웨이브 조사까지 유지한 경우가 23.2%로 가장 높았고 2차 웨이브 조사 이후 비경제활동인구로 변경되어 이를 유지하고 있는 패널이 22.2%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음.
- 1차 웨이브 조사에 임금근로자였던 패널의 일자리 형태 변화를 보면, 4차 웨이브 조사까지 계속해서 임금근로자로 남아 있는 비율이 59.3%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높은 비중은 3차 웨이브 조사까지 임금근로자로 일자리를 유지했지만 4차 웨이브 조사 들어 비취업자로 변경된 패널(9.5%)로 나타났고 2차 웨이브 조사까지는 임금근

로자였지만 3차 웨이브 조사부터 비취업자로 변경된 패널(7.2%)과 2차 웨이브 조사부터 비취업자로 변경된 패널(6.5%)의 비중이 다른 형태의 변화보다 높게 나타남.

〈표 17〉 임금근로자의 상태변화

(단위: 명, %)

구분		4차(2012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비취업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722	(59.3)	17	(1.4)	13	(1.1)	116	(9.5)
	비임금근로자	1	(0.1)	11	(0.9)	0	(0.0)	1	(0.1)
	특수고용형태근로자	2	(0.2)	1	(0.1)	4	(0.3)	2	(0.2)
	비취업자	31	(2.5)	6	(0.5)	3	(0.2)	88	(7.2)
비임금 근로자	임금근로자	3	(0.2)	0	(0.0)	0	(0.0)	0	(0.0)
	비임금근로자	1	(0.1)	7	(0.6)	0	(0.0)	2	(0.2)
	특수고용형태근로자	70	(0.0)	0	(0.0)	0	(0.0)	0	(0.0)
	비취업자	0	(0.0)	1	(0.1)	0	(0.0)	1	(0.1)
특수고용 형태근로자	임금근로자	1	(0.1)	0	(0.0)	0	(0.0)	0	(0.0)
	비임금근로자	0	(0.0)	0	(0.0)	0	(0.0)	0	(0.0)
	특수고용형태근로자	1	(0.1)	0	(0.0)	2	(0.2)	0	(0.0)
	비취업자	1	(0.1)	0	0.0	0	0.0	1	(0.1)
비취업자	임금근로자	54	(4.4)	1	(0.1)	1	(0.1)	7	(0.6)
	비임금근로자	1	(0.1)	5	(0.4)	1	(0.1)	2	(0.2)
	특수고용형태근로자	0	(0.0)	0	(0.0)	0	(0.0)	0	(0.0)
	비취업자	26	(2.1)	1	(0.1)	1	(0.1)	79	(6.5)

주: 1차 웨이브 조사 임금근로자(1,218명)의 종사상 지위 변화를 추적함.

- 정규직의 고용형태 변화를 보면, 1차 웨이브 조사의 정규직 근로자가 2차, 3차, 4차 웨이브 조사까지 계속해서 정규직으로 남아 있는 비율은 58.9%로 나타남. 4차 웨이브 조사에 비정규직 상태로 변경

된 패널 비율은 10.9%이었고 비취업 상태로 변경된 비율이 21.4%로 나타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차 웨이브 조사까지 정규직 상태를 유지하다가 비취업자로 변경된 비율이 8.6%로 비교적 높았고 3차 웨이브 조사와 2차 웨이브 조사부터 비취업자로 변경된 비율이 각각 6.0%와 4.8%를 차지했음.

〈표 18〉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형태 변화

(단위: 명, %)

구분		4차(2012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정규직		비정규직		비임금+특수고용		비취업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규직	정규직	355	(58.9)	10	(1.7)	9	(1.5)	52	(8.6)
	비정규직	3	(0.5)	20	(3.3)	0	(0.0)	1	(0.2)
	비임금 +특수고용	0	(0.0)	0	(0.0)	5	(0.8)	1	(0.2)
	비취업자	8	(1.3)	4	(0.7)	4	(0.7)	36	(6.0)
비정규직	정규직	1	(0.2)	0	(0.0)	0	(0.0)	0	(0.0)
	비정규직	2	(0.3)	10	(1.7)	0	(0.0)	2	(0.3)
	비임금 +특수고용	0	(0.0)	0	(0.0)	0	(0.0)	0	(0.0)
	비취업자	0	(0.0)	1	(0.2)	1	(0.2)	2	(0.3)
비임금 +특수 고용	정규직	2	(0.3)	0	(0.0)	0	(0.0)	0	(0.0)
	비정규직	0	(0.0)	0	(0.0)	0	(0.0)	0	(0.0)
	비임금 +특수고용	0	(0.0)	0	(0.0)	3	(0.5)	1	(0.2)
	비취업자	0	(0.0)	1	(0.2)	1	(0.2)	2	(0.3)
비취업자	정규직	7	(1.2)	2	(0.3)	1	(0.2)	1	(0.2)
	비정규직	0	(0.0)	11	(1.8)	0	(0.0)	2	(0.3)
	비임금 +특수고용	0	(0.0)	1	(0.2)	0	(0.0)	0	(0.0)
	비취업자	6	(1.0)	5	(0.8)	1	(0.2)	29	(4.8)

주: 1차 웨이브 조사 정규직 근로자(603명)의 근로형태 변화를 추적함.

- 취업자의 일 만족도를 보면, 4차 웨이브 조사는 1차 웨이브 조사와 비교하여 전반적 만족도를 비롯하여 고용안정성, 직무내용, 근로환경, 근로시간, 개인발전가능성, 복리후생 등에서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단, 4차 웨이브 조사 소득수준의 만족도는 20.3%로 1차 웨이브 조사에 비해 1.9%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가장 높은 만족도는 1차 웨이브 조사와 2차 웨이브 조사의 경우 직장 내 인간관계로 나타났으나, 3차 웨이브 조사부터는 직무내용으로 나타남.

〈표 19〉 일자리 만족도 변화

(단위: %)

일자리 특성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소득수준	22.2	19.4	23.3	20.3
고용안정성	36.6	36.7	39.3	38.9
직무내용	39.5	38.6	43.6	46.4
근로환경	35.7	35.3	39.9	44.2
근로시간	35.3	35.4	40.1	42.3
개인발전가능성	28.5	29.0	30.3	30.4
직장 내 인간관계	42.3	39.5	42.1	42.3
복리후생	19.8	20.3	21.5	22.6
전반적 만족도	28.6	28.9	30.9	32.1

주: ‘매우만족’과 ‘약간만족’에 응답한 비율의 합임.

- 구직자의 희망 근로형태는 2/3가량은 전일제를 1/3가량은 시간제를 선호함. 시간제를 희망하는 비율은 1차 40.5%에서 2차 27.5%, 3차 33.4%에서 점차 하락하여 4차에 32.6%로, 시간제를 원하는 패널의 비중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표 20〉 희망하는 근로 형태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전일제	59.5	62.4	66.6	67.4
시간제	40.5	27.5	33.4	32.6
특별히 원하는 것이 없다	0.0	10.1	0.0	0.0

- 여성의 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측면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러한 생각 또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 ‘일을 하는 것은 내게 삶의 보람과 활력을 준다’에 대한 비율은 2차 웨이브 조사부터 92% 이상의 응답자들이 ‘매우 그렇다’ 혹은 ‘조금 그렇다’로 응답함. 즉, 1차 웨이브 조사는 88.5%로 90% 미만이지만 2차 웨이브 조사 92.2%, 3차 웨이브 조사 92.9%, 4차 웨이브 조사 93.1%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또한 ‘일을 함으로써 식구들한테 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와 ‘일을 함으로써 가정생활도 더욱 만족스러워 진다’는 질문에도 80% 이상이 긍정적 응답을 했고 이 질문에 대한 긍정비율 또한 대체로 상승추이를 보였음. 반면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와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와 같이 부정적 질문에 대해서는 1/3가량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질문의 경우 1차 웨이브 조사 37.4%에서 3차 웨이브 조사에 39.8%로 소폭 상승했지만 4차 웨이브 조사에서 32.4%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질문의 경우 3차 웨이브 조사에 31.5%가 긍정적 응답을 하였지만, 4차 웨이브 조사 시 21.2%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확인 되었음.

〈표 21〉 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변화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일을 하는 것은 내게 삶의 보람과 활력을 준다	88.5	92.2	92.9	93.1
일을 함으로써 식구들한테 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83.8	87.5	86.3	87.8
일을 함으로써 가정생활도 더욱 만족스러워진다	80.6	86.3	87.2	88.9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	37.4	37.3	39.8	32.4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	29.7	29.2	31.5	21.2

주: ‘매우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의 합임.

- 일과 가족의 양립에 대한 질문을 가정생활이 일에 미치는 영향으로 변경하여 여성의 가정생활이 일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먼저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는 질문에 대해 2/3가량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질문에 대해 1차 웨이브 조사 응답자는 61.0%가 ‘매우 그렇다’ 혹은 ‘조금 그렇다’로 긍정적 응답을 하였으며, 2차 웨이브 조사와 3차 웨이브 조사는 이 보다 약간 상승한 63.2%와 64.7%로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상승한 반면, 4차 웨이브 조사의 경우 58.8%로 긍정적 응답이 비교적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식구들이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 주어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라는 질문에는 70%이상이 동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도 4차 웨이브 조사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대체로 상승추이를 보임. 가정생활이 일에 대해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질문의 경우 긍정적 측면보다는 이에 동의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해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다’라는 질문에 대해 여성 패널은 3차 웨이브 조사 39.2%까지는 긍정적 동의를 하였지만 4차 웨이브 조사에서

30.8%로 크게 낮아짐. ‘집안일이 많아서 직장 일을 할 때도 힘들 때가 많다’는 질문에는 1차 웨이브 조사에서 36.0%가 동의했고 3차 웨이브 조사는 이 보다 4.2%p 높은 40.2%가 동의했지만 4차 웨이브 조사는 31.1%로 크게 낮아졌음. 마지막으로 ‘식구 중 환자가 생겨서 일을 그만 둘 생각을 해 본적이 있다’라는 질문에는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이 매우 적었다. 즉, 이 질문에 대해 여성 패널은 1차 웨이브 조사 12.8%, 2차 웨이브 조사 12.2%, 3차 웨이브 조사 13.5%가 동의했고 4차 웨이브 조사 들어서는 8.8%로 낮아졌음.

〈표 22〉 가정생활이 일에 미치는 영향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	61.0	63.2	64.7	58.8
식구들이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주어 일을 더 열심히 하게된다	70.3	77.7	78.3	78.1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해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다	36.5	34.2	39.2	30.8
집안일이 많아서 직장 일을 할 때도 힘들 때가 많다	36.0	34.9	40.2	31.1
식구 중 환자가 생겨서 일을 그만 둘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12.8	12.2	13.5	8.8

주: ‘매우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의 합임.

### 3 정책제언

여성가족패널의 변화와 학술대회의 연구결과(심층연구)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 정책은 고용형태, 임금, 복리후생, 장시간 노동 등 고용환경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기혼 여성의 이직 및 노동시장 이탈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결혼이나 미취학 자녀의 양육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는 기혼여성의 이직이나 노동시장 이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오히려 고용형태, 임금과 복리후생, 장시간의 노동 등 고용환경이 어떠한가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결혼과 출산을 전후한 경력단절’ 연구결과를 보면,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일 때 출산 시 경력단절 현상이 정규직일 때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가족패널의 1~4차 웨이브 조사 자료를 통해 여성 일자리 변화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 임금 근로자 비율은 상승했으나(1차 58.6% → 4차 65.4%), 정규직 비율(1차 57.7% → 4차 54.3%)과 전일제 비율은 하락(1차 79.5% → 4차 58.2%)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특징은 여성가족패널이 고령화되면서 나타나는 측면도 있지만, 여성 일자리가 질적 측면에서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최근 여성 고용 정책들을 보면 여성의 일자리 확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음. 이에 여성의 고용률은 상승하고 있지만,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크게 개선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동안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정부는 일하는 여성의 자녀보육과 지원, 직업훈련, 알선 등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방법은 고용환경의 개선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즉, 여성은 좋은 고용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 출산과 자녀양육으로 인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현상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둘째,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를 노동시장으로 이끄는 유인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 1~4차 웨이브 조사까지 모두 응답한 여성가족패널의 경우 1차(2007년)에 취업상태이었던 패널 중 77.0%는 4차(2012년)까지 계속해서 취업상태로 남아 있었고 1차에 비경제활동 상태이었던 패널 중 60.6%는 4차 웨이브 조사까지 계속해서 비경제활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음.

● 최근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유인정책은 경력단절 여성 혹은 청년층에 초점을 두고 있음. 하지만 여성 고용률 제고는 이들 집단의 정책만으로 한계를 가질 밖에 없음. 여성가족패널의 경제활동 상태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은 60% 이상은 비경제활동 상태에서 한 번도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시도하지 않았음. 반면 1차 웨이브 조사에 실업자로 분류되어 노동시장 진출의사를 가진 패널이 계속 실업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음. 최근 통계청은 실업통계를 개선하여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실업자로 간주하여 보조지표로 확대된 실업률을 발표함. 여성의 실업률이 낮은 이유는 잠재경제활동인구 중 많은 잠재구직자가 비경제활동으로 구분되기 때문임. 이에 여성 고용률의 효과적 제고를 위해 정책방향은 비경제활동인구로 확대하고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성을 세분화하여 집단 특성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셋째, 일반건강검진의 검사 연령을 20세로 낮출 필요가 있음.

● 이 보고서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여성 특이적 건강상태와 보건형태와의 상관분석’이란 제목으로 심층 분석한 결과, 19~29세와 30~39세 여성이 60세 이상 집단 보다 평소 건강검진을 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질병 치료 측면보다는 예방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젊은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질환이 많아지고 있어 국가건강검진의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됨.

- 현재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자 연령이 만 40세 기준으로 시작되고 있어 19~29세, 30~39세 연령 집단은 검진 대상자에 제외됨. 특히 여성 중 직업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인 경우 만 40세가 되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일반건강검진을 못 받게 됨. 국가건강검진 중 일반건강검진의 목표 질환을 심뇌혈관과 결핵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고혈압, 비만, 결핵 등의 검사의 연령은 20세로 낮추어져야 할 것으로 봄.

## 4 기대효과

- ▣ 가족의 변화 파악과 치밀한 가족정책수립
- ▣ 여성정책의 핵심적 사항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의 정책수립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